



順天金氏中央宗親會

제 103호

順天金氏宗報

宗訓

1. 崇祖 精神의 高揚
2. 宗族 和睦의 勵行
3. 國家社會에 貢獻

2020.06.22 (월)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인:김장원 / 편집인:김범재 / <http://www.schkim.co.kr> / 056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백제고분로 21길 24 삼전빌딩 2층 / 전화(02)400-2501 / FAX(02)400-2505

선화이후대사(先和而後大事)



전국 종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우리 종친회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게 된지도 벌써 반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종친여러분들께서 우리 順金家門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었기에 무사히 순항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민족은 외세의 힘에 의해 근대화가 이루어지다보니 무비판적 서구이념의 터널을 지나 현대적 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선조님들의 전통의식과 함께 하는 생활 방식과는 먼 삶을 살아온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를 외면한 생활 방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무모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화해도 그 속에 꼭 지켜야 할 가치는 존재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살아온 과거는 떨어진 낙엽이 아니라 그 낙엽이 밑거름이 되어 오늘 우리의 나무를 무성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중앙종친회는 선조님과 현재의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가족과 함께 문중의 책임을 다해 현재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때 비로써 우리의 가정과 사회, 더 나아가 국가는 더욱더 풍성하고 인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종친여러분!

옛말에 “先和而後大事”란 말이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모아 화합을 이루고 이후 큰일을 도모하라는 뜻이지요. 중앙종친회는 특정 몇몇의 조직이 아닌 順金家門을 대표하는 사랑방입니다.

과중회 역시 소수의 인원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임들께서 비록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그때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이해하고 현재에 맞지 않는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상대를 인정하고 해결하는 모습이 진정한 가문을 이끌어가는 집행부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조상님과 공감하는 우리의 종친회 만들어 갈 때 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언제라도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종친회 운영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송조사업과 후진양성에 더욱 힘쓰며 항상 사랑이 넘치는 順金家門의 사랑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저를 비롯한 임원진 모두 약속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일이 불투명한 가운데 일단, 올해도 대학생 하계강좌를 개최 하고자 하오니 전국에 종친께서는 하계강좌에 직접 참석하여 주시고 모든 순천김씨 후손에게 적극 권장하여 많이 참석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더라도 우리 종친여러분께서는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06월, 순천김씨 중앙종친회 회장 김 장 원

후원금, 회관건립기금 및 동원재 정화사업 계좌안내

그동안 전국 종원여러분과 과중회 및 지파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중앙종친회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동원재 정비사업은 당면 과제이고 장기적인 사업에는 중앙종친회 회관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전국의 중시조 및 입향시조 묘역은 현재 관리가 잘 되어져 있으나 정작 시조묘역은 따로 관리인이 없어서 묘역 관리가 소홀 할 뿐더러 전국 풍수지리 교육 장소라 다른 집안에서도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후손된 도리로 조상님께 불경스러운 따름입니다.

따라서 후원금 ‘1만원 기부하기 운동’과 회관건립 헌성금 중, 1구좌 당 50만원과 동원재 정화사업은 건립하신 분이나 과중회

이름으로 헌성비를 동원재 순김 역사동산에 건립 할 것이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국 순천김씨 종원 여러분!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를 지키고 명실상부한 중앙종친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합심, 단결할 때입니다.

종원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농협중앙회 : 355-0008-1852-43 예금주 : 순천김씨종친회
 국민은행 : 478701-01-224098 예금주 : 순천김씨종친회
 우리은행 : 1005-001-547913 예금주 : 순천김씨종친회

시조부군 영당 춘향제 봉행

2020년 3월 29일 (음3/6) 화요일 오전 11시, 순천시 주암면 소재 시조부군 묘역 동원재에서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최소인원 제관만 참석하여 초헌관에 중앙 종친회장 장원(長元), 아헌관 영규(永奎) 명예회장, 중헌관 고양 동(東), 축관에

병사공 형섭(형섭)회장, 중무부회장 동현(東鉉) 집례로 영당재에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 하였다. 이어서 관리인 부부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마련해준 오찬을 맛있게 먹고 시조부군 묘역 정비에 관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

었으며 금년에도 학생강좌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학생강좌가 되도록 의견을 나누고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기념 촬영]



[초헌례-장원회장]



[중헌례-영규 명예회장]



[아헌례-동현회장]

긴급공지

※ 인터넷족보 회원 가입안내 ※

금번 인터넷족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기존에 회원가입 하셨던 분들의 아이디가 삭제 되었습니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며 불편 하시더라도 재가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단된 자료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현재 업그레이드 중이오니 7월1일 이후에 회원가입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축문 해설

1. 축문(祝文)의 의의(意義)

제례나 상례 때 신에게 축원을 드리는 글로서 예서(禮書)에 의하면 의식에 쓰이는 글을 축문, 축사(祝辭), 고사(告辭)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를 모두 축(祝)이라는 말로 구별 없이 사용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구분하면 축문만이 신에게 축원을 드리는 글이다. 축사는 신에게 드리는 글이 아니고 의식을 행하는데 대한 축하하는 내용의 글이며 고사는 어떤 사실을 신에게 고하는 글이다.

축문은 신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 제례 때에만 사용된다. 그러나 많은 의례 중 상례와 제례에만 고유문과 축문이 있다. 관례와 혼례에는 고사와 축사가 있을 뿐이고 축문은 없다.

2. 독축 방법

독축은 창홀 방법과는 다르다. 독(讀)하되 경건하게 축(祝), 애(哀), 경(敬), 고(告) 등에 따라 경건하고 행사 내용에 맞고 사성과 고저장단에 맞게 읽어[讀]야 한다.

3. 축문의 일반적 서식

먼저 언제 축문을 올리게 되는지 그 때를 명시한다. 그 형식은 왕조의 연호를 먼저 쓰고, 다음에 세차 간지(歲次 : 干支)에 의하여 정한 해의 차례를 쓰고, 다음에 월, 일을 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연호는 없이 세차부터 쓴다. 세차와 월 다음에 그달 초하루의 일진을 쓰고 날짜와 그날의 일진을 간지로 명기한다.

때를 명기한 다음 축문을 올리는 사람의 신분을 밝힌다. 벼슬이 있으면 먼저 관직을 쓰고 이름을 쓴다. 또 조상에게 올리는 축문일 경우는 몇 대손 혹은 현손(玄孫), 증손(曾孫), 손(孫) 등으로 제사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쓴다. 그 대상의 적장자일 경우에만 '효(孝)'를 붙여 '효자(孝子)', '효현손(孝玄孫) 등으로 쓴다.

4. 축문 예시

1) 조부모 기제 합설축

維 歲次庚子四月丙申朔十八日癸丑
孝孫 範載 敢昭告于
顯 祖考 學生府君
顯 祖妣 金海金氏 歲序遷易
顯 祖妣 金海金氏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永慕
謹以 清酌庶羞 恭伸奠獻 尚饗

2) 선대 묘사축

維 歲次庚子十月壬戌朔朔日朔
後孫 範載 敢昭告于
顯 二十一代祖考 資憲大夫 戶曹典書 府君
顯 二十一代祖妣 貞夫人 光山李氏 之墓
歲薦一祭 禮有中制 履茲霜露 彌增感慕
謹以 清酌庶羞 祇薦歲事 尚饗

3) 선대 묘사 산

維 歲次庚子十月壬戌朔朔日朔
幼學 金頌載 敢昭告于
土地之神 宗孫 金範載 恭修歲事于
順天金氏 資憲大夫 戶曹典書 府君 之墓
維時保佑 實賴神休 謹以酒果 祇薦于神 尚饗

4) 한글 축문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한문으로 축을 써서 독축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적 상황을 보면 교육정책이 한자 교육에 소홀하여 고등교육을 받고서도 우리의 전통 축문을 제대로 쓸 소양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축문을 쓰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전통적인 한문 축문을 쓸 수 있는 경우와 한글 축문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한글 축문도 쓸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한문 축문을 써야 한다고 고집하면 한문 축문을 쓸 능력이 없는 세대는 축문 자체를 거부하게 될 것이다.

축문의 본뜻은 행사에 따라 고할 내용을 아뢰면 되는 것이니 시대적 상황에 맞게 한글 축문이라도 써서 행사해야 마땅하다. 또 지방을 한글로 써도 된다.

전통적 한문 축문을 쓰거나 한문 축문을 한글로 번역한 내용을 축문으로 활용하거나 오늘날의 문체로 쓴 한글축문을 써서 활용하는 등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 각자 상황에 맞게 축문을 써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축하면 제주뿐 아니라 주부도 손님도 한잔을 올릴 수 있는 삼헌(三獻 : 석잔)으로 제사를 모시는 것이 자손의 도리이다. 효손 祖의 춘향제를 초헌관 金鍾款, 아헌관 玉川人 趙德基 중헌관 道康人 金桓植, 祝官 金海人 金文才, 海州人 崔泳勳집례 하였다.

5) 축문 용어

- 감(敢) : 감히.
■ 감망(敢忘) : 감히 잊을 수가 있겠는가?

- 감모(感慕) : 마음에 느껴 사모함.
■ 감소고우(敢昭告于) : 삼가 밝게 아뢰옵니다.
■ 건고근고(虔告謹告) : 정성들여 고하고 삼가 고향
■ 건자택조(建茲宅兆) : 무덤을 이룸.
■ 경신전헌(敬伸奠獻) : 공경하는 신께 전(奠)을 올림
■ 고애자(孤哀子) : 아버이를 모두 여윈 바깥 상주가 자기를 일컫는 말.
■ 공수세사우(恭修歲事于) : 공손하게 제사를 올림
■ 공신(恭伸) : 공손하게 펼치다.
■ 공신전헌(恭伸奠獻) : 공손하게 전(奠)을 드림
■ 귀근지시(歸根之時) : 풀과 나무의 뿌리까지 기운이 거두어지는 계절이라는 뜻
■ 근고(謹告) : 삼가 아뢰다.
■ 근구모물(謹具某物) : 비지(碑誌), 상석(床石), 망주(望柱), 석인(石人) 등 건립하는 석물에 따라서 쓰게 된다.
■ 근미심자시(謹未審茲時) : 삼가 아직 살피지 못한 이 때
■ 근이(謹以) : 이에 삼가
■ 근이주과(謹以酒果) : 삼가 맑은 술과 과일을 올려.
■ 근이청작(謹以清酌) : 삼가 맑은 술을 올려.
■ 금신불유(今辰不留) : 영을 받아 더 머무를 수 없음
■ 금이계추(今以季秋) : 지금 계절은 가을입니다.
■ 금이득지(今以得地) : 이제 묘자리를 얻었음.
■ 금이계추(今以季秋) : 지금 계절은 가을입니다.
■ 금이득지(今以得地) : 이제 묘자리를 얻었음.
■ 금이초목(今以草木) : 풀과 나무를 뜻하는 말
■ 기서(氣序) : 세월의 기운이 바뀌어 가는 차례.
■ 기서유역(氣序流易) : 세월이 흘러 계절이 바뀜
■ 둔석(窀穸) : 무덤의 구멍, 무덤.
■ 득지어(得地於) : 땅을 마련해
■ 망극(罔極) : 부모의 상을 당하여 그지없이 슬픔.
■ 망일부지(亡日復至) : 죽은 날이 다시 돌아옴
■ 매우묘소(埋于墓所) : 묘소에 묻음.

- 명일장천(明日將遷) : 날이 밝으면 옮김
- 모관모군(某官某君) : 벼슬이 있으면 관직을 기재하고 벼슬이 없으면 학생 부군(學生府君)이라 기재.
- 모관모씨(某貫某氏) : 본관과 성씨.
- 모명(某名) : 제사의 제주 되는 이의 성을 뺀 이름
- 모봉(某封) : 부(夫)의 관직에 따른 직첩을 기재하고, 벼슬이 없으면 '유인'이라 기재
- 비통무이 지정여하(悲痛無已至情如何) : 슬프고 아픈 마음 비할 데 없고 정을 어디에 비하리오 하는 뜻
- 모좌지원(某坐之原) : 묘를 어느 방향으로 잡음
- 몰(沒) : 죽음.
- 몰녕감망(沒寧敢忘) : 돌아 가셨지만 편안하신 지 잊을 수가 없다는 뜻
- 반구지가(返樞之家) : 영구가 집에 돌아옴
- 백로기강(白露既降) : 찬이슬이 벌써 내렸다는 뜻

- 보우(保佑) : 보호하고 도움.
- 복유(伏惟) : 삼가 생각하건대.
- 봉영(封塋) : 조상의 무덤을 높이는 말.
- 부군(府君) : 돌아가신 아버지나 남자 조상에 대한 존칭
- 부우묘좌(附于墓左) : 묘 왼편에 합장.
- 부자승감(不自勝堪) : 감정을 스스로 이기지 못함
- 부제(附祭) : 3년상을 마치고 신주를 조상 신주 곁에 모실 때 올리는 제사.
- 부진불경(不震不驚) : 겁내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라는 뜻
- 불승(不勝) : 감정을 스스로 억눌러 견뎌내지 못함.
- 불승비창(不勝悲愴) :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함
- 불승영모(不勝永慕) : 사모하는 마음 금할 수 없음
- 비념상속 심언여훼(悲念相續心焉如燬) : 슬픈 생각이 연달아 마음이 편치 않음

- 비도산고 부자승감(悲悼酸苦不自勝堪) : 슬프고 괴로움을 견디어 내지 못함
- 비무(俾無) : 하여금 없다.
- 빙(憑) : 기댔 빙, 귀신들린 빙
- 사구종신(舍舊從神) : 옛것을 버리고 새 것(신주)에 따름
- 삭(朔) : 상을 당한 달의 초하루라는 뜻으로 축문에는 언제나 쓰임
- 상로기강(霜露既降) : 찬 서리가 이미 다 내렸다는 뜻
- 상사(祥事) : 소상.
- 상향(尙饗) : 이제 흠향하시옵소서. 축문, 제문의 끝에 씀
- 생시유경(生時有慶) : 살아 계실 때와 같이 경사를 베푸는다는 뜻
- 생신부우(生辰復遇) : 돌아가신 부모님의 생신 날이 다시 돌아 왔다는 뜻
- 서수(庶羞) : 여러 가지 음식.
- 선비(先妣) : 돌아가신 어머니.
- 성물지시(成物之始) : 만물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시기

순천김씨 선대 조사적개괄(順天金氏先代祖事蹟概括)

조상님들의 사적을 읽어보면 시조(始祖) 부군께서는 신라왕가의 후예(後裔)이셨고 신라 말엽 무장(武將)으로 順天지역에 나아가 외적을 물리쳐 민생(民生)을 편안케 하시어 公 死后(사후) 백성들이 公의 영정을 진례산에 모시고 그 지역의 수호신인 성황신(城隍神)으로 받들었었다. 高麗 初太祖는 그 곳을 안관사(安官祠)라 賜額(사액)하고 매년 제향하게 하였으며 朝鮮朝(조선조)에서도 봄·가을 유생(儒生)을 보내어 祭享(제향)케 하였었다. 후일 朴蘭鳳(박난봉)장군과 李舜臣(이순신)장군도 追配(추배)하였었으나 조선말에 사당이 훼손되게 되어 후손들이 公의 영정(影幀)만을 同源齋(동원재)로 옮겨모시었다가 影堂(영당)을 짓고 모시었다. 2세조이신 휘 유(裕) 할아버지께서는 신라의 역적 견훤과 싸워 대승을 하시니 견훤은 간신히 목숨만을 건지고 석씨집안에 종의 신분으로 7년을 숨어 살다가 공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다시 나타나 후제를 건국하였다. 시조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 순천 지역을 수호하셔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셨으니 그 시대는 우리 순천김문의 훈공(勳功)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조에 들어서는 3세조(諱 慶衍)부터 4.5.6.7世祖까지 100여 년간 위 선조들께서는 신라 멸망의 한을 품고 산중(山中)에서 은거생활을 하셨으며 다음 수세대 선조들께서는 산외(山外)로 나와 사시며 입사(入仕)도 하시는 등 100여년을 사셨다. 다음 수세대 선조들 즉 13. 14. 15. 16세조 할아버지들께서는 고위관직(高位官職)까지 지내시다 무신정권(武臣政權)기에 충절을 지키시다 순절(殉節)을 당하시는 등 수난의 100여년을 사셨으니 오늘날 생각컨대 우리 順天金氏에게는 충의(忠義)의 피가 이어져 흐르는 상 싶다. 다음 17세조 諱(舜), 善長(선장), 이후 20세조까지의 근 100년의 고려말기에는 벼슬도 이어진 평탄한 시기로 이어졌다 할 수 있으니 고려500년은 우리 順天金氏로서는 위와 같이 100여년씩 4개기로 나누어진 영욕(榮辱)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조에 들어서는 태종대에 양경공(諱 承暉), 세종대의 절재공(諱 宗瑞)의 빛나는 공훈(功勳)은 고려말기의 부진을 불식(拂拭)하고 우리 順天金門의 중흥(中興)을 이루게 되었었다.

단종대에 들어 수양대군의 왕권욕(王權慾)은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節齋公 일가를 파멸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감찰공(諱 嗣昌), 璿성공(諱 嗣成), 철원공(諱 玉), 생원공(諱 琮), 남은공(諱 孝友) 형제분등 15.6분의 선조들께서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은둔(隱遁)의 생을 사시게 하는 등 일대 화난(禍難)을 겪게 하였다. 위 피화(被禍)이후 사환(仕宦)의 길을 접은 선조들께서는 학문에만 정진하셨고 中宗대에 들어 평양군(諱 舜臯)께서는 입사(入仕)하여 무관(武官)으로 많은 공을 세우셨으며 가곡공(諱 希說)께서는 문관(文官)으로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 그 후 눌재공(慶言), 인백당공(諱 樂春)등 많은 선조들께서는 학문을 닦고 효제(孝悌)와 덕업(德業)의 생을 사셨다. 선조대에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니 장의공(諱 汝叻), 언양공(諱 玉)등께서는 전공을 세우시고 순절하였고 문에 정진하던 충효당공(諱 協), 인심재공(諱 庇河), 계곡공(諱 復興)등 30여 선조 들께서는 충의(忠義)의 의병(義兵)을 일으켜 전공을 세우시니 선무공신(宣武功臣)에 오른

분도 여러분이시다.

광해군조에는 간신들의 농간으로 강상(綱常)이 무너지게 되자 북저공(諱塗)께서 뜻을 같이하는 중신(重臣)들과 반정(反正)을 이끌어 정난(靖難)하니 일등공신으로 책록되고 사후에는 인조묘정(仁祖廟庭)에 배향되셨다. 그리고 동리공(諱允安), 구암공(諱慶長)등 많은 선조들께서는 벼슬길에 연연하지 않고 학문의 길을 가셨으니 이는 200여 년 전의 계유화(癸酉禍)의 양금이 가지지 않은 맛이리라.

숙종대에 이르는 동안 입사(入仕)하여 벼슬길을 가신 선조들도 계셨지만 두촌공(諱成始), 눌재공(諱斗雄), 수약재공(諱碩勛) 괴당공(諱瑞徵)등 많은 선조들께서는 장희빈의 연고로 혼조(昏朝)가 계속되어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학문하며 극진한 효제의 길을 사셨다. 이윽고 영조대에 이르러 절재공 등의 신원(伸冤)복관(復官)이 이루어져 우리 金門의 300년간의 한이 풀리게 되어 더 많은 선조들께서도 입사(入仕)하게 되고, 학문의 길은 이어졌

으며 처음으로 우리의 족보(族譜)도 간행되는 등 우리 金門의 문벌도 명문답게 이어지고 있다.

돌이켜보면 신라의 종성(宗姓)이신 시조 부군의 덕업(德業), 고려조의 휘경연(慶衍), 휘(希哲), 휘평조의 충절(忠節), 조선조의 양경공, 절재공의 훈업(勳業), 평양군과 북저공의 훈공(勳功) 그리고 수많은 선조들의 학덕(學德)과 효제(孝悌)등은 우리 金門이 가히 화벌(華閥)이라 할 만하다 할 것이다.



제 31기 학생 하계교양강좌 공고

- 내 용 : 순천김씨 자녀들로 하여금 2박 3일 동안 보학 교양강좌를 통하여 송조, 애종, 효친돈목, 4례 및 족보 찾는법, 지방 쓰는 법 등, 경로사상을 고취하며 명문화벌의 자녀로서 긍지를 심어주는데 목적을 둔다.
- 일 시 : 2020년 7월 24일 ~ 7월 26일 (2박3일)
- 장 소 :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동원재
- 접수일자 : 2020년 7월 10일까지 (단체티 주문관계로 날짜를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서면 또는 전화접수
- 자 격 : 순천김씨 자녀로서 고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함 (선착순 20명 정도)
- 연 락 처 : 중앙중친회 (02)400-2501~2, 총무이사 김범재 (010-9069-3554)
- 특 전 : 참여 학생 모두에게 장학금 지원
- 준비물 : 세면도구, 수건, 간편 복장, 필기 도구, 마스크
- 성인 참여 환영 (단, 성인은 입회비 100,000원)

※ 코로나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 취소 될 수 있으며, 발열, 기침 등의 증세가 있는 사람은 절대 참석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양식 -

이름	한글 :	한자 :	생년월일 :
종파	시조 00 세	파종 : 00 세	예) 파종 : 전서공 23세
학교	00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00 학과 또는 학년	
주소			
연락처	집 :	핸드폰 :	상의치수 : 90,95,등
이메일			

※ 기타 장학금을 현성하시는 분은 현성하시는 분 이름으로 장학증서 수여하오니 많은 성원바랍니다.

건강백과

“단 1회 복용으로 평생 뇌졸중 끝”

◆ 시기 : 5월 말경이 가장 좋음

뇌졸중으로 쓰러지지 않는 비법

뇌졸중은(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중풍이라고 부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경색], 또는 그 반대로 뇌혈관이 터져[뇌출혈], 뇌손상을 일으키고 따라서 뇌 기능이 저하되어 갑자기 쓰러지거나,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본의 구니와께 시에 있는 양로원인 게이쇼엔에서 여러 노인들이 쓰고 있던 비법이 세상에 알려져서 일본 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수 천 명의 사람들이 실험해본 결과, 이 비법을 사용한 사람은 한사람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 신비의 약 만드는 법

★ 재료

▶ 매실(청매실에 한함), 머구(머위), 계란(유정란)

- 1. 계란(유정란) : 1개(흰자만)
- 2. 머구(머위)잎의 즙 : 작은 스푼 1스푼(3잎정도, 잎 뒤에 털이 있는 것은 효과가 없음)
- 3. 청주(정종) : 작은 스푼 3스푼(소주는 안 됨)
- 4. 매실즙 : 매실 1개를 씨를 빼고 즙을 낸다.(반드시 청매실일 것 : 익으면 약효 떨어짐)

◆ 만드는 순서

- 1. 달걀 흰자를 플라스틱용기에 넣고 나무젓가락으로 150회 정도 같은 방향으로 젓는다.
- 2. 머위잎(즙)을 넣고 50회 정도 젓는다.
- 3. 청주를 넣고 30회 정도 젓는다.
- 4. 매실(즙)을 넣고 20회 정도 젓는다.
- 5. 주의 : 반드시 순서대로, 쇠붙이가 닿으면 안 되고, 복용 후 30분 이내는 물, 음식을 먹지 말것. 틀니나 의치가 있으신 분은 빨대로 먹을 것.

* 시기 : 5월 말경이 가장 좋음

* 이 신비의 약은 평생에 단 한 번의 복용만으로 다시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지 않게 된답니다.



[청매실]



[머 위]



[유정란]

회비 입금 현황 (인명부록)

(2020년 03월 25일~ 2020년 06월 20일까지)

- * 회관건립 후원금 - 회관건립 헌성금비건립 (50만원 이상)
- * 동원재 묘역 정화사업 후원금 - 순김역사동산에 헌성비 건립 (100만원 이상)
- * 회비 납부 시, 지로용지에 주소 및 이름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 * 기재가 안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부 회 장 (50만원)

- 05월11일 김지섭 (30만원)
- 충남 보령

고 문 (20만원)

- 04월08일 김길주 전북 익산

이 사 (20만원)

- 04월07일 김상우 경기 김포
- 05월18일 김상실 전남 해남

회 원 (5만원)

- 03월27일 김석환 농협입금
- 04월01일 김동중 경기 과천
- 04월01일 김동규 서울 강서
- 04월02일 김종남 부산 기장
- 04월03일 김진권 경북 성주
- 04월04일 김상균 경기 양평
- 04월06일 김석연 인천 연수
- 04월06일 김동원 충북 음성
- 04월06일 김성재 경기 이천
- 04월06일 김방현 경북 안동
- 04월07일 김상학 경기 용인
- 04월07일 김동근 경기 고양
- 04월07일 김상동 경기 부천
- 04월07일 김세희 인천 남동
- 04월07일 김만희 경북 문경
- 04월07일 김희일 서울 송파
- 04월07일 김만형 인천 계양
- 04월07일 김상우 경기 용인
- 04월08일 김백연 광주 서구
- 04월08일 김기환 경북 문경

- 04월08일 김동환 서울 중랑
- 04월13일 김왕희 울산 남구
- 04월13일 김동성 경기 성남
- 04월13일 김정학 경남 양산
- 04월14일 김세연 경기 고양
- 04월14일 김일연 울산 북구
- 04월16일 김귀순 서울 강남
- 04월17일 김동일 경기 시흥
- 04월18일 김동옥 경북 문경
- 04월22일 김영우 서울 은평
- 04월22일 김기석 서울 동작
- 04월27일 김상천 경기 파주
- 04월27일 김길원 광주 동구
- 04월28일 김영태 경북 구미
- 04월28일 김문호 인천 연수
- 04월28일 김종태 대구 달서
- 04월29일 김동환 대전 대덕
- 05월01일 김상천 경기 안성
- 05월05일 김기환 서울 도봉
- 05월13일 김윤배 전남 해남 (3만원)
- 05월15일 김영도 경기 안성
- 05월13일 김지웅 경기 김포
- 05월20일 김세덕 인천 부평
- 05월25일 김정남 서울 서초
- 06월10일 김동수 경기 하남

무 기 명

- 04월07일 우리은행/마포
- 04월07일 우리은행/마포
- 04월14일 농협은행/봉화

헌 성 금

- 김인식 경기 용인 - 백만원(동원재 정화사업)
- 김장원 (회장)- 오백만원

헌성금 입금 (매 월 십 만원 자동이체)

- 김인환 충남 금산
- 김동일 경기 시흥
- 김장원 인천 부평

헌성금 입금 (매 월 오 만원 자동이체)

- 김경열 경기 고양
- 김창희 경북 구미

헌성금 입금 (매 월 만원 자동이체)

- 김상실 전남 해남
- 김교남 충남 금산
- 김우영 부산 동구
- 김상열 서울 중랑
- 김세용 서울 양천

누 락 자

- 01월06일 김태연 경기 용인
- 01월13일 김영환 전북 정읍
- 01월10일 김현만 서울 성북
- 01월16일 김재원 전남 담양
- 01월16일 김중원 전남 담양
- 01월17일 김학이 경북 의성
- 01월20일 김정호 횡성공파 회장 - 50만원
- 02월13일 김행업 명예회장 - 200만원
- 김홍연 경기고양 - 3만원

준 향 제 향 대

- 지평공파 20만
- 전서공파 20만
- 양경공파 20만원
- 상의원정공파 20만원
- 협천공파 20만
- 신천공파 20만

회비를 납부 하였는데 기재가 안되었으면 무명인란을 확인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누락 되신 분은 연락 주시면 다음호에 기재에 드리겠습니다.